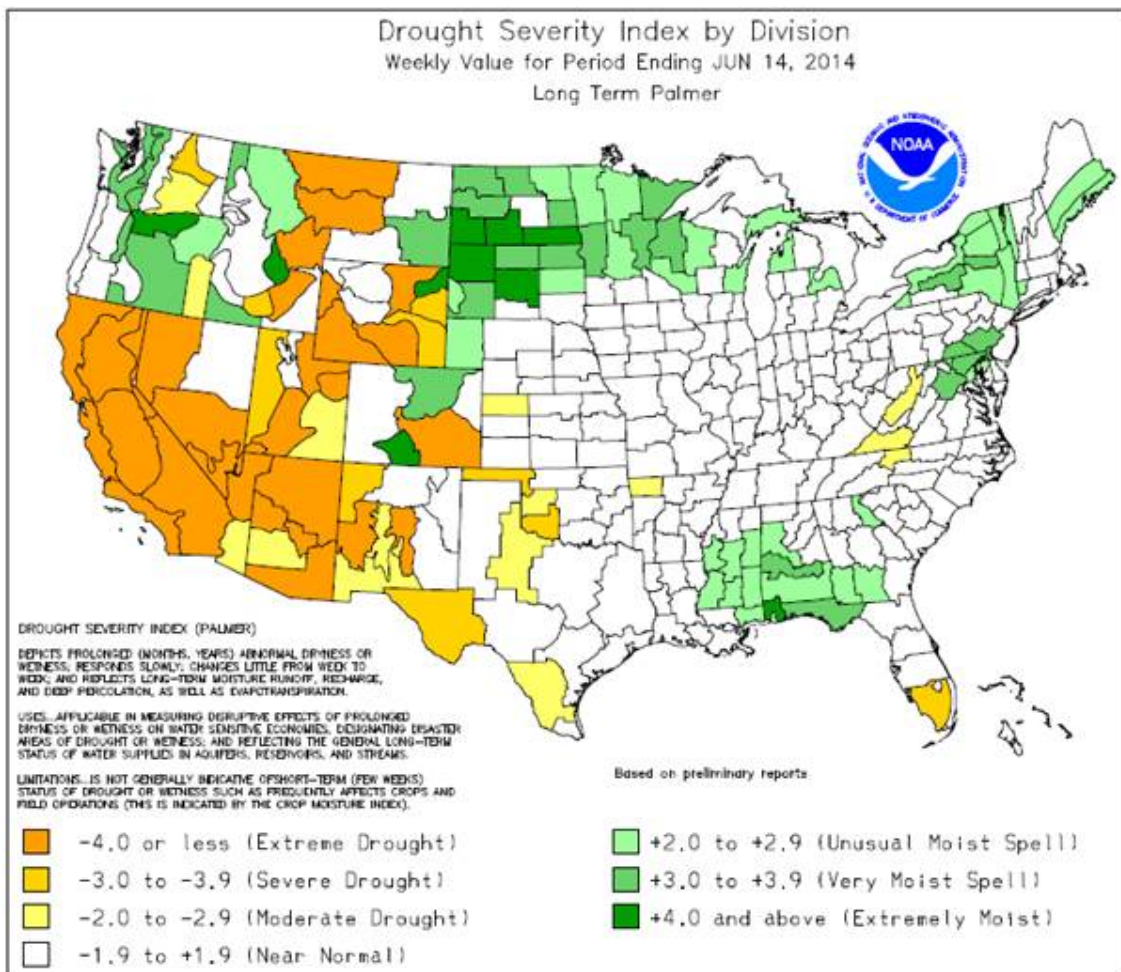


6월 17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1, No. 24)

□ 미국 기후 현황(06/08~06/14)



풍부한 강우량은 점차적으로 중부지역에서부터 동쪽의 남부 대평원으로 이동하였다. 넓은 지역에 내린 소나기는 남부지역 가을밀과 후기 파종 활동 및 수확을 포함한 야외 농작업에는 지장을 주었지만, 점차적으로 목초지와 중·동부 지역의 여름 곡물들의 생육상태에는 선호되는 기상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중부와 남부 대평원에서 다년간 지속된 가뭄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추세이나, 북부와 동부 대다수 지역에서는 여전히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지역에서 과도한 비가 내려-특히 남부와 동부 지역에서-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홍수가 발생하였다. 심각한 뇌우가 중부와 남부 대평원, 남부와 동부지역에서 발생하기도 하였다. 한편, 서부지역에서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팽배하였으며, 시즌 초반 폭염으로 인한 날씨가 점차 더 서늘한 조건으로 변화했다.

서부의 폭염지역에서는 야외 농작업과 작물의 생육상황이 증진되었지만, 관개 요구도 증대되었다. 주간 평균 기온은 캘리포니아 지역의 경우 평년보다 높은 10°F 수준이었지만, 주 후반에는 서늘한 기온이 나타나는 흐름을 보였다. 주말에는 서부 중산간 지역에서는 영하의 기온이 기록되는 곳도 있었다. 동부지역으로 갈수록, 주 후반 한랭전선으로 인해 다시금 폭우가 내리기도 하였으며, 북부 대평원과 중서부 상단지역의 경우 국지적으로 강력한 뇌우가 발생하였다. 북부 고원평야지역에서는 비로 인해 일시적인 가뭄현상이 해갈되었으며, 서부 콘벨트 지역에서는 여름작물에 대한 충분한 수분 저장이 가능한 날씨가 유지되었다.

□ 농업 현황 요약(06/09~06/15)

중부 지역에 속한 일리노이, 캔자스, 미주리, 네브라스카, 사우스다코타 지역의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낮은 6°F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록키산맥의 서쪽 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지만 동부 대다수 지역에서는 적어도 소량의 강수량이 한 주 동안 기록되었다. 폭우는 미시시피 강 유역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저지대의 경우 홍수가 발생하였으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오와, 캔자스, 네브라스카 지역에서도 한 주 간 강수량이 4인치 인상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옥수수

주말 기준, 전국적으로 옥수수 발아율은 97%p 수준으로, 전년대비 6%p 앞선 상황이며, 5년 평균대비 다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전체 옥수수의 상태는 76%가 좋음/아주 좋음으로 보고되었으나, 이는 지난주 보다는 다소 높고, 전년 동기대비 12%p 높은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개선된 야외작업 조건으로 인해 아이오와 지역에서는 전년대비 83%p의 옥수수 재배지역에서 옥수수의 작황상태가 좋음/아주 좋음으로 나왔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3%p 높은 수준이다.

■ 대두

6월 15일 기준, 전국 생산자들의 92% 파종을 마무리 하였으며, 전년대비 9%p, 5년 평균대비 2%p 앞선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 기준, 전국 대두의 발아율은 83%p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20%p 앞섰고, 5년 평균대비 6%p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전체 대두의 상태는 73%가 좋음/아주 좋음으로 보고되었으나, 이는 지난주 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전년 동기대비 9%p 높은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 가을밀

6월 15일 기준, 출수기에 진입한 가을밀은 92%로 전년대비 4%p 앞섰으나, 5년 평균 대비 2%p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전체 생산자들의 가을 밀 수확량은 16%p로 전년대비 6%p 앞섰고, 5년 평균 대비 4%p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클라호마와 텍사스 지역에서의 수확률은 높은 편이었지만, 중부와 남부 대평원 지역의 경우 산발적인 강수량으로 인해 수확 작업이 지연되었다. 미국 전체 가을밀의 상태는 30%가 좋음/아주 좋음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지난주와 차이는 없었지만, 전년대비 다소 뒤쳐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쌀

6월 15일 기준, 전국적으로 쌀 발아율은 99%로 전년동기 대비 2%p 앞섰고, 5년 평균 대비 3%p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알칸사스 지역에서는 폭우로 인해 토지의 비옥화가 지연되었고 쌀 재배 지역에서는 홍수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미국 전체 쌀의 상태는 69%가 좋음/아주 좋음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전주대비 비슷한 수준이며, 전년동기 대비 다소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 세계 기후 현황(06/08~06/14)

- 유럽: 소나기와 뇌우로 인해 발생한 기온이 상승되었으나, 서늘한 날씨가 주말에 형성되었다. 중부 프랑스에서 서부 폴란드와 발칸지역에서는 고기압이 정체되어, 낮 최고기온이 30°C 초·중반으로 형성되었다. 풍부한 토양 수분을 유지하기에 적합한 현상으로 인해 높은 기온이 겨울 작물의 충전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않았다. 시즌 초반에 나타난 높은 기온은 주요 북부 가을 밀 과 유채 재배지역에 소나기(10~60 mm)를 내리게 하였으며, 잠재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상황이 줄어들었다. 주말에는, 한랭전선이 중부와 동부 유럽에 서늘한 날씨를 유발하였으며, 또 다른 유용한 소나기와 뇌우(2~22mm)를 동반한 날씨가 폴란드와 발칸반도 동부지역에 나타났다. 겨울 곡물의 생육상태는 평년보다 2~3주 앞선 상황이다. 남부 지역인 이탈리아의 경우 주 초반에는 맑은 날씨가 지속되어, 야외 농작업과 여름 곡물의 발육상황에 도움을 주었으며, 주 후반에는 폭우(10~30 mm)가 쏟아져 옥수수, 대두, 해바라기에 필요한 충분한 토양수분을 제공해 주었다. 스페인 지역에서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밀 수확에 용이하였으며, 산발적이거나, 소량의 비가 내리기도 하였는데 이로 인해 야외 농작업이 다소 지연되기도 하였다.
- 구소련(서부): 넓은 지역에 내린 소나기와 뇌우는 이 지역의 밀과 여름 곡물의 수확전망을 향상시켰다. 중부 우크라이나부터 남부와 서부 러시아지역에서는 느리게 이동하는 저기압으로 인해 한랭전선이 발달하였고, 적당하거나 많은 양의 비(5~40mm, 국지적으로 더 많음)가 내렸다. 폭풍은 최근 폭염을 양산하였으며, 이로 인해 최고기온이 30°C초반이었으나, 주말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C으로 교체되었다. 습하고 서늘한 날씨는 이미 가을밀의 긍정적인 수확량을 전망케 하였으며, 고온과 건조함은 봄밀의 생육상황에 대한 걱정을 완화시켜주었다. 남부 러시아와 동·중부 러시아 지역의 주요 옥수수와 해바라기 재배지역에서는 최근의 습하고 서늘한 날씨로부터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지적으로 수분 부족이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불가장 유역 동부지역에서는 많은 양의 비가 봄밀의 생육에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 동아시아: 중국 대륙에서는 강수량이 산재하였으며, 북동부와 남서부 지역에서는 대체로 일정하게 비가 내렸다. 옥수수와 대두 재배지역인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는 주 초반 25~60mm의 소나기가 내렸다. 북동부 지역에서는 한 주 동안 25mm 미만의 비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조금 더 남부 지역으로 갈수록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던 중국 북부 대평원에서는 가을 밀 수확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짧은 소나기(1~10 mm)가 내린 산둥 지역에서는 수확이 다소 지연되기도 하였다. 중국 남부 지역에서는 총 강수량이 5월 1일 이래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중국 남서부지역에서는 폭우가 발생하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100mm이상의 강우량이 기록되어 국지

적으로 시즌 총 강수량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한국에서는 최근 강수량은 25~50mm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동부 재배지역의 경우, 75mm 이상의 비가 내린 곳도 있었으나, 장기 평균 총 강수량 대비 더 많은 비가 내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의 경우 많은 양의 비(75~200 mm)가 쌀 재배지역에 내려, 평년대비 시즌 총 강수량을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지역 기온은 평년대비 1~4°C 높은 온도를 기록하여, 30°C 중반의 기온을 기록하였다.

- 호주: 서부와 남부 호주, 빅토리아와 남부 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 산발적인 소나기(3~15 mm, 국지적으로 더 많음)가 내렸고, 계절에 맞는 온화한 날씨가 겨울 곡물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으며, 밀, 보리, 카놀라의 출수와 수립에 도움을 주었다. 북부 뉴사우스웨일즈와 남부 퀸즈랜드에서는 넓은 지역에서 소나기(5~25 mm)가 내려 표토층 수분을 증대시키고, 밀과 기타 겨울 곡물의 생육상황에 도움을 주었다. 호주 동부 지역의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2°C 높았고, 최고 기온은 일반적으로 10°C 후반에서 20°C 초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 아르헨티나: 남동부 농업지역에서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 이로 인해 여름 곡물의 추가 수확이 지연되었다. Buenos Aires 지역의 총 강수량은 50 mm 이상, Entre Rios를 포함한 북부 지역에서는 25mm 이상이 내렸다. 더 건조한 날씨가 지배적이었는데, 밭에 과도한 수분이 있었던 상황이 완화되는데 도움을 주었다. 북동부 면화 벨트지역에서는 경량의 소나기(10mm 미만)가 동부 면화 생산지역의 가장자리에 산발적으로 내렸다. 대부분 농업 지역의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 2°C가 높았으며, 한랭전선이 지나간 주 후반 북부 지역의 경우 낮 최고기온이 20°C 후반에 육박하였다. 온난한 날씨가 중부 아르헨티나 지역을 지배하였으며, 낮 최고기온은 10°C에서 20°C 초반으로 집계되었다. 북부와 북부 Cordoba 지역에서는 영하의 기온에 이르기도 하였지만, 늦은 영하의 날씨로 인해 작물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 12일 기준, 아르헨티나 농림부 발표에 따르면, 금년 대두 수확률은 89%p로, 전년대비 10%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옥수수 수확률은 44%p로, 전년 80% 대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 브라질: 계절에 맞는 건조한 날씨가 브라질 중부지역에 확장되었으며, 성숙기를 거친 옥수수와 면화의 충진을 위한 발육단계에 도움을 주었다. 실질적으로 Mato Grosso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고, 전통적인 우기 시즌이 끝남에 따라 도움이 되던 강수량도 몇 주간 보고되지 않았다. 계절에 맞지 않는 고온의 날씨(낮 최고기온이 30°C 중반에 육박함)가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작물의 빠른 성장이 예상되었다. 고온과 건조한 날씨는 서부 Bahia와 사탕수수와 커피 수확이 한창인 남동부 Sao Paulo와 Minas Gerais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계절에 적합한 습도 높은 날씨는 동부 해안을 따라 확장되었는데 사탕수수, 코코아, 커피 생육에 필요한 수분을 증가시켜 주었다. 한편, 계절에 맞지 않는 폭우(25~100mm)가 주요 남부 겨울 곡물 생산지역에 내렸으며, 국지적으로 밀과 미성숙한 옥수수의 일반적인 발달과 수립에 필요한 수분이 과도하게 충족되었다. 남부 곡물 벨트지역에서는 주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2~3°C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낮 최고기온은 20°C 중·후반으로 곡물의 성장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측되었다.